

보도시점 2026.10.12.(월) 09:30 배포 2026. 10.10.(토)
< 10.12.(월) 석간 >

『5극3특 권역별 현장행보 ⑦』

산업부장관, 권역별 현장행보 이어가며 성장엔진 육성에 속도낸다

- 10.12일 서남권, 14일 강원, 28일 대경권 순차 방문 -
- 대규모 기업투자, 주력산업 M.AX 확산 등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추진현황 점검 -
- 반도체·조선, 바이오·의료기기, 배터리 등 지역산업 특성에 맞춘 지원방안 논의 -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10.12(월) 서남권을 시작으로 10.14(수) 강원, 10.28(수) 대경권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현장행보를 이어간다. 이번 행보는 지난 8월 발표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방안」을 바탕으로 각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에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정관 장관은 각 권역별 주요 투자·산업현장을 찾아 대규모 기업투자의 신속한 이행 및 지역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기업·지방정부·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서남권에서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부지·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 M.AX 전략회의와 조선소 현장방문을 통해 조선 산업의 AI 전환과 지역 중소조선·기자재 기업으로의 확산을 추진한다.

이어 14일에는 강원도를 방문해 ▲바이오 산업육성 협약식을 갖고, 기술 개발부터 인프라·규제·수출까지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성장엔진 투자기업 간담회와 ▲후평 바이오 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투자 애로를 청취하고, 바이오 제조 현장의 AI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8일에는 대경권을 찾아 ▲배터리 시험실증센터 준공식에 참석하고, ▲제3차 M.AX 지역 확산 컨퍼런스를 통해 제조기업과 AI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제조업의 AI 전환을 뒷받침할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이달 내 「충청권 제4차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기업별 투자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정부의 인허가 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기후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전력·용수 공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권역별 현장행보 주요 일정(안) >

일자	권역	주요 일정
10.12(월)	서남권	▶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현장점검 ▶ 조선 M.AX 전략회의 및 삼호조선소 현장방문
10.14(수)	강원	▶ 바이오 산업육성 협약식 ▶ 성장엔진 투자기업 오찬간담회 ▶ 강원 후평 바이오 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
10.28(수)	대경권	▶ 성장엔진 투자기업 간담회 ▶ 배터리 시험실증센터 준공식 ▶ 제3차 M.AX 지역 확산 컨퍼런스
10월 중(잠정)	충청권	▶ 충청권 제4차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

이번 현장행보의 첫 일정으로 김 장관은 12일 광주와 목포지역을 방문했다.

<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현장 점검 >

먼저, 김정관 장관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후보지인 광주 군공항을 방문하였다.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서남권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반도체·AI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군공항 임시배치, ▲산단지정 및 부지 조성, ▲전력·용수 공급계획 등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인과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김정관 장관은 관계자들에게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 조성, ▲전력·용수 공급 인프라의 차질없는 확보, ▲주민 수용성 제고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아울러, 서남권의 대규모 기업 투자가 지역의 산업생태계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도체 소부장, R&D, 인재 양성 등 지원방안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조선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 및 HD현대삼호 조선소 현장방문 >

이어서, 김정관 장관은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개최한 「조선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에 참석하였다.

조선 M.AX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출범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를 조선제조 공정 전반으로 확대·개편한 것으로, 제조기업, AI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관·학·연 협력체인 「M.AX 얼라이언스」의 분과 중 하나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AI자율운영조선소 등대공장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지역 중소조선·기자재 제조 AX 확산을 위한 투자·업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함께 크는 조선 M.AX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제1차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26~’35)」이 발표되었다.

※ 행사 관련 세부 보도자료 별도 배포 : 10.13(화) 조간

이후, 김정관 장관은 HD현대삼호 영암조선소를 방문하여 ▲협동로봇을 활용한 소조립 작업현장, ▲AI 기반 공정 모니터링 플랫폼, ▲용접로봇·다족보행 로봇 등을 살펴보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아울러, 조선 제조 현장에서 AI·로봇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역 중소조선·기자재 기업으로 M.AX를 확산할 방안을 점검하였다.

김정관 장관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부지와 전력·용수 등 투자기반을 차질없이 마련해 투자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뒷받침하고, 조선산업은 설계·생산 현장에 AI를 적용해 조선소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서남권의 대규모 기업투자와 주력산업 혁신이 지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강원·대경권 등으로 현장행보를 이어가며, 지역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균형성장 정책의 속도감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붙임」 조선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 개요

담당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사무관	이재석 (044-203-4410) 최재홍 (044-203-4411) 성민석 (044-203-4406)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안홍상 (044-203-4270) 박문일 (044-203-4272)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사무관	이디도 (044-203-4331) 임성관 (044-203-4332) 김재민 (044-203-4333)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6.10.12(월) 13:00 ~ 14:00 / 호텔 현대바이라한 목포
- (참석자) (정부·지자체) 산업부 장관, 전남광주특별시장, 영암군수
(협화·기업) 조선협회장(HD현대), 삼성, 한화, 삼호, HJ 등
(유관기관) 중소조선연구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선급 등

□ 주요 행사 내용

- ① AI 조선소 등대공장 구축 및 지역 중소조선 M.AX 확산을 위한 협약
 - HD삼호·대아산업이 AI 조선소 등대공장 구축을 위해 총 4,000억원 투자
- ② 함께 크는 조선 분야 M.AX 프로젝트 발표
 - 산단별 지역 앵커-협력사 공동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 ③ 제1차 자율운항선박 기본계획('26~'35년) 발표

□ 세부 일정(안)

구분	시 간		내용	비고
개회	13:00~13:04	(04')	▶ 개회 및 내빈소개	
영상시청	13:04~13:05	(01')	▶ M.AX 얼라이언스 홍보 영상	
인사말씀	13:05~13:20	(15')	▶ 개회사 및 축사	개회사 : 산업부 장관 축사 : 전남광주특별시장·영암군수·협회장
MOU	13:20~13:35	(15')	▶ AI 조선소 등대공장 투자 협약식	HD현대삼호·전남광주특별시·영암군·협력사 대표기관
사진촬영	13:35~13:40	(5')	▶ 주요 참석자 기념 촬영	
발표 (2건)	13:40~13:50	(10')	▶ 함께 크는 조선 분야 MAX 프로젝트	제조산업정책관
	13:50~14:00	(10')	▶ 자율운항선박 기본계획	KR 장화섭 센터장